

고대영어의 어순에 관하여*

박 영 배

1. 두가지 견해

고대영어의 심층어순(underlying word-order)에 관한 논의는 6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고대영어의 어순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는 대체로 고대영어(이하 OE로 약함)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는 것이었으며 격어미(case ending)가 문법기능을 나타내 준다고 주장했다(Fries 1940, Mossé 1945).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 후 여러 학자(Shannon 1964, Carlton 1970, Gardner 1971)들의 연구에서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OE의 어순이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특수한 통사구문에서 상당한 정도로 규칙성(regularity)과 일관성(uniformity)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최근 언어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OE의 어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표면상 복잡해 보이는 OE의 통사구조유형을 밝히는 데 언어이론이 분석의 도구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심층어순'이란 개념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Lightfoot(1974, 1977, 1979, 1981), Canale(1976, 1978), Wagner(1969), Traugott(1965) 등은 OE의 심층어순이 SOV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Malsch(1976)는 다중내포절에서의 완전한 절(full clause)과 유사절(quasi-clause)간의 경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VO어순을 주장한다. Reddick(1982)은 OE의 한 방언인 초기 서 색슨 방언(Early West Saxon)의 예를 들어 NP-전위규칙(NP-Preposing Rule)이 이 방언에 있음을 근거로 Malsch 및 Lightfoot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OE의 심층어순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SVO어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Koopman(1985, 1988)은 Koster(1975)에서 화란어를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OE의 통사구조

*본 논문과 관련된 최근 자료를 보내준 van der Wurff 교수(암스텔담대학 영문과)에게 감사한다. 또한 *Studia Linguistica* (Lund 41, 1987)에 게재된 논문의 별책본을 보내준 Mats Rydén 교수(Umeå대학 영문과)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두 분의 논문은 본고 작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필자의 논지중 모순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비판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촛스키(1981) 이후 크게 변하고 있는 최근의 생성문법이론이 고대영어의 통사구조분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는 필자로서는 더 연구해 봐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OE의 경우 SOV어순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OE의 통사구조유형을 다룬 극히 최근 논문인 Szalai-Smits(1988)에서는 OE의 통사구조가 현대영어에서와 같이 층형(hierarchical shapes)을 이루고 있다는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층형분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자료이긴 하나 13C 경에 나타난 간접수동문과 같은 층형분석의 반증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OE 통사구조의 계층적표시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 문헌에 나타나는 자료를 토대로 미루어볼 때 층형분석(configurational approach)이 비층형분석보다 문제점 해결이 한층 더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SOV가설

필자는 졸고(1988a)에서 OE의 심층어순은 SOV임을 이미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좀 더 보강하고 위에서 논의한 두가지 견해의 입장을 OE 자료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해 보려고 한다.

OE의 심층어순을 결정짓는 문제는 영어의 통사구조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anale(1978), Stockwell(1987), Lightfoot(1979)은 OE의 어순은 SOV였으며 그 후 SVO로 발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Bean(1983)에서 엿볼 수 있다. Bean은 심층어순이란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표면에 나타나는 OE 통사구조유형을 근거로 하여 OE는 'Verb Third'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2. 비층형성

Hale(1982, 1983), Haider(1981, 1985a, 1985b)를 포함한 학자들은 이른바 층형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s)와 비층형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s)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통사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층형성에 관련된 매개변수(parameter)를 고정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비층형언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은 여러 통사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속성은 현대영어와 같은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발전된 X-bar 이론에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들 비층형언어가 지닌 몇가지 중요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i) 뒤섞기(scrambling) 유형의 자유로운 어순

(1) a. Ngarrka-ngku ka wawirri panti-rni
man ERG AUX kangaroo spear NON-PAST

'The man is spearing the kangaroo.'

b. Wawirri ka panti-rni ngarrka-ngku

c. Panti-rni ka ngarrka-ngku wawirri (Hale 1983)

위의 알피리에에 엮보이는 문장성분은 항상 제 2의 위치를 차지하는 조동사인 ka를 제외하고 주어, 목적어, 동사는 문장 내에서 뒤섞어 놓여서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다.

(ii) 불연속표현의 사용

- (2) *Wawirri kapi-rna panti-rni yalumpu*
 kangaroo AUX spear NON-PAST that
 'I will spear *that kangaroo*.' (Hale 1983)

예문 (2)는 명사와 한정사가 횡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으며 표면구조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iii) NP-이동의 결여

- (3) *daß der Mann(NOM) dem Mädchen(DAT) einen Ring(ACC)*
überreichte
daß dem Mädchen(DAT) ein Ring(NOM) überreicht wurde (Haider 1985b)

Haider(1985b)는 예문 (3)에서와 같은 비이동분석(non-movement analysis)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그는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사이에 어순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없다고 본다. Haider는 NP-이동이 아닌 격부여가 (3)과 같은 수동문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iv) 영 대용어(null anaphora)의 사용(또는 대명사탈락)

- (4) a. *Ngarrka-ngka ka panti-rni*
 'The man is spearing him/her/it.'
 b. *Wawirri ka panti-rni*
 'He/She is spearing the kangaroo.'
 c. *Panti-rni ka*
 'He/She is spearing him/her/it.' (Hale 1983)

예문 (4)에서 빠져있는 대명사는 그 지시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PRO로 분석되지 않는다.

(v) 허사(pleonastic) NP의 결여

- (5) a. *daß gekämpft wird/getanzt wurde*
 'that *there* is fighting/was dancing'
 b. **daß es ein Mann vor der Tür ste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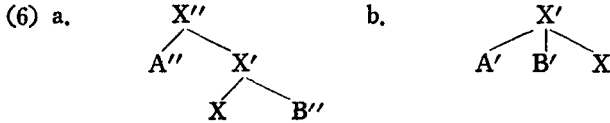
'that *there* is a man at the door'

c. daß Sonntag ist

'that *it* is Sunday' (Haider 1985b)

2. 이론적인 배경

비충형통사론의 본질을 연구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Hale(1982)에서 비롯된



다. 이 논문에서 Hale은 구절표시자(*phrase-markers*)의 계층적인 깊이의 문제로 충형언어와 비충형언어가 지닌 근본적인 차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두 언어유형의 기본구절구조를 도식화하면 (6)과 같다. 충형언어 (6a)가 두개의 횡선층위(*two-bar level*)까지 투사시키는 데 반해, 비충형언어인 (6b)는 하나의 횡선층위(*one-bar level*)까지만 투사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평면적(*flat*)인 통사구조를 지니게 되는 점이 다르다. 즉, 비충형언어는 $s[NP_i; NP_j; V]$ 와 같은 평면적인 통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충형언어는 $s[NP_i; VP[V; NP_j]]$ 와 같이 S(*sentence*)와 VP내부에 각각 계층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비충형언어가 갖는 구조는 지배(*government*)의 개념으로는 어휘핵(*lexical head*)의 논항들을 구별할 수가 없으며, 예문 (1)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하나 이상의 NP가 문구조상 자유로이 나타난다. 따라서, 구절구조를 두 개의 지배영역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격표시와 의미역표시(*theta-marking*)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충형언어구조인 $s[NP_i; NP_j; V]$ 에서는 논항위치가 구조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격표시 및 의미역표시가 지배에 좌우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그 기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Hale은 비충형언어는 부여된 격(즉, 충형구조에서 그 구조상의 위치에 입각하여 격이 NP에 부여되는 경우)을 이용하지 않고 어형성(*word-formation*) 성분만으로 명사적표현과 관련된 격인 고유격(*inherent case*)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실제로 격부여가 하위범주화과정을 통해 일어나며 VP-구조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충형언어에서는 모든 위치가 의미역위치(*theta-positions*)가 된다고 Hale은 주장한다(Hale 1982:90).

2.1. 간접수등문

비충형구조에서 모든 논항위치가 의미역위치가 된다는 사실은 비충형언어

에서 NP-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의 논항위치에서 다른 논항위치로 NP-이동을 하게 되면 의미역기준(theta-criterion)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NP-이동이 결여된 통사환경의 좋은 예로서 간접수동구문¹이 있다. 총형언어에서는 수동문이 과거분사로부터 격을 받을 수 없는 목적어 NP를 예컨대, INFL로부터 주격을 받는 주어위치인 의미역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NP-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능동문이 수동문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비총형언어에서는 이동된 NP가 들어갈 착륙자점(landing-site)에 알맞는 의미역 논항위치가 없기 때문에 NP-이동은 가능하지 않다. 예문 (7)과 같은 OE의 간접수동문은

(7) For þan þæt geara gelamp purh euan adams wif þæt deap wæs gangende on middangeard and þa wæs þissum middangearde (DAT) eft hiera haele (NOM) agyfen purh marian þa faem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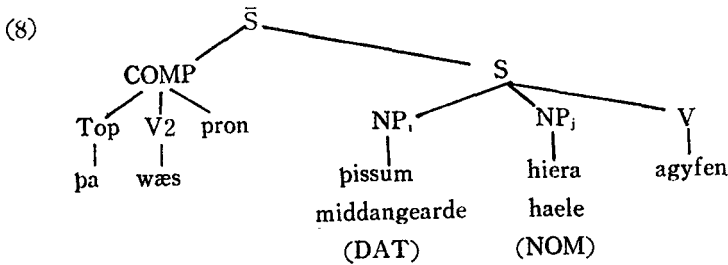
—HomM 5 (Willard) 121

‘For that year it happened because of Eve, Adam’s wife, that death was ongoing in the world and then was this world afterwards given her salvation by Mary the Vir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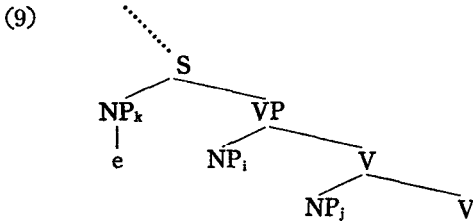
NP-이동이 없는 어휘적수동문의 형태를 지닌다.² 이 문장에서 두 개의 명사(즉, þissum middangearde 및 hiera haele)는 논항위치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앞영역(pre-S area)의 비논항위치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저생성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주제(topic) 위치는 þa가, COMP는 wæs가 이미 차지하고 있고, 동사 제 2위치(V2 position)의 오른쪽에 있는 접어위치는 대명사만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문 (7)에서는 NP-이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 결과 (8)과 같은 통사구조를 갖

¹ 간접수동구문에서 ‘간접(indirect)’이란 용어를 쓴 것은 표면층위에서 여격 NP가 주격 NP 앞에 오는 수동구문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구문은 간접목적수동문(indirect object passive)을 줄여서 쓴 것이므로 13C에 나타나 쓰이게 된 본래의 간접수동문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다른 수동문으로는 비인칭수동문과 인칭수동문이 있는데, 전자는 두 개의 NP가 있으며 어느 것도 주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표면층위에서 주격 NP가 여격 NP 앞에 와서 쓰인다.

² OE 문헌에 쓰인 간접수동문은 비총형언어의 한 특성인 NP-이동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예인데, 이것은 필자가 앞에서 주장한 OE의 심층어순이 SOV라는 논지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OE 통사구조가 평면적인 VP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OE가 부분적으로 비총형언어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증처럼 보이는 간접수동문은 OE문헌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중세영어시기(13C)에 와서 비로소 널리 쓰이게 된 구문이다. OE의 격체계가 현대영어의 그것과 크게 달랐던 점을 감안할 때 간접수동문이 OE의 통사구조분석에 결정적인 반증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8)과 같은 계층구조를 가정하게 될 경우, NP_i 및 NP_j가 적정격(proper case)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X-bar 이론에서 형식화한대로 격부여규칙은 (9)와 같은 계층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NP_i는 [NP, \bar{V}] 위치에서 주격을 받을 수 없으며 V도 NP_i에 여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 den Besten(1985)은 (9)와 같은 구조를 문제점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화란어와 독일어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동문 및 능격구문(ergative constructions)에서는 [NP, S]위치에서는 목적어를, [NP, \bar{V}]위치에서는 주어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격은 실제로 V의 목적어로 기저생성되며 VP내에서 목적어 의미역은 받지만, 목적격은 부여받지 않는다. 따라서 den Besten의 이론은 간접수동문에는 이동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석을 택하고 있으며 주어 의미역의 외재화(externalization)는 VP에 있는 목적어 의미역을 지닌 NP에 주격을 부여함으로써 해서 저지된다. 이런 점에서 den Besten의 간접수동문분석과 Burzio의 능격가설(ergative hypothesis)사이의 유사점은 분명해진다.

2.2. OE 인칭대명사

필자는 졸고(1988a, 1988b)에서 OE의 인칭대명사의 분포를 기술하면서 이들 대명사가 접어(clitics)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인칭대명사의 통사행동(syntactic behavio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완전한 NP(full NPs)의 통사행동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자의 경우는 VP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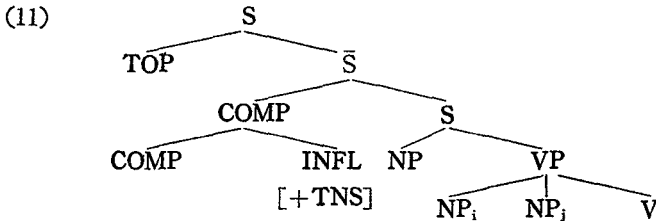
비논항위치(\bar{A} -position)로 이동할 수 있는 독특한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OE에는 원칙적으로 인칭대명사가 나타나는 비논항위치가 있는데 이들 위치는 (10)과 같다.³

- (10) (i) V의 바로 왼쪽(동사가 제 2 위치에 오는 절에서)
 (ii) VP의 왼쪽영역
 (iii) COMP

만약, OE 대명사가 갖는 속성이 접어화에 있다고 한다면 'pæt him (DAT) his fiend (NOM) wæren æfterfylgende'와 같은 유형을 지닌 모든 통사구문(Hale의 이론에 의하면 비충형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되지만)은 적절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OE 대명사가 기저생성된 위치에 있지 않고 비논항이동(\bar{A} -movement)의 결과로 이 위치에 오기 때문이다. 또한 OE 수동구문의 절반 이상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명사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OE수동문이 비충형분석을 뒷받침해 준다는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⁴

2.3. 주제화 및 간접수동문

간접수동문에서 여격 NP가 주제위치로 주제화되면 [NP_{dat} V_{aux} NP_{nom} V_{pass}]와 같은 표면어순을 이루게 되는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이들 NP논항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충형분석에는 맞지 않는다. (11)과 같은 구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시해주는 기본형상이다. 이 구조에 나타나는 평면적인 VP는 OE에서 두개의 목적어를 지닌 타동사가 나타나는 구문에서의



여격목적어 및 대격목적어 위치에 관한 Koopman(1988)⁵에 근거하여 생성된

³ 이에 관한 상세한 자료 및 이론적인 설명은 졸고(1988a)를 참조하기 바람.

⁴ 이런 점에서 보면 예문 (7)은 비충형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OE문헌에는 이러한 구문의 예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⁵ 이 논문은 1987년 4월에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St. John's College에서 열린 제 5차 국제 영어역사언어학회의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필자는 Koopman 교수에게서 이 논문의 script를 직접 얻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필자가 연구중인 OE의 심층어순에 관한 증거를 한층 보강해 주는 논문으로 생각된다.

다. *Koopman*은 여격 NP 및 대격 NP가 S-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VP내에서 서로 계층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OE가 평면적인 VP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비층구조를 지닌 언어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문 (12~14)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12) *Eallum þam sawlum (DAT) is seo yld (NOM) forgifenn...*

(AEEtat 192)

'All souls is given age'

(13) *Ic heofige and geomrie mine hefegan benlas, for þam þe peowum mannun (DAT) to pissere tide and carmun mannun (DAT) is inn gang (NOM) alyfed innto godes cyrican god to gebiddanne...*

(AEHom 27.91)

'I lament and mourn my grievous chains, because on this holy festival enslaved men and poor men is granted entrance into God's church in order to pray to God...'

(14) *...þa wearð se bryce eall eft gestaðelode & þam sceancan (DAT)*

wæs seo ærre haelo (NOM) agifen (GD 1 10.82.24.)

'then the fracture was thereupon healed again and the leg was given its earlier firmness'

예문 (12~14)와 같은 유형의 수동문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NP_i는 주어위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INFL로부터 주격을 받게 되며, 여격 NP_i는 기저격(base case)과 함께 주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NP_i는 심층구조에서 여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격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구조격(structural case)이 아니다. V는 (V2규칙에 따라) COMP에서 동사 제 2의 위치(즉, V2 position)로 이동하며 절 내의 제 2 위치에 오게 된다.

(12~14)와 같은 구문에 나타난 어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1)에서 의무적인 주어위치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주제화의 경우, 격부여규칙을 가정하지 않고도 이 주어위치는 NP_i의 착륙지점으로 작용하며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치가 반드시 주격 NP로 채워질 필요는 없지만 OE에서는 주어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자리라는 사실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2~14)와 같은 주제화구문은 OE 문헌에서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들 구문은 층형분석에 관한 한, 아무런 문제점을

던져주지 못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비층형분석의 가능성

13C경에 쓰이기 시작한 간접수동문이 층형분석에 맞지 않는 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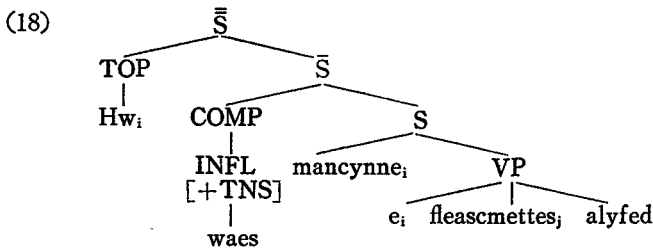
예문 (15~17)은 앞에서 제시한 (7)과 유사하다.

(15) & swa hit gelamp, pæt, þa þam Godes maen (DAT) his agen hors (NOM) gegifen waes, hi þa ealle heora hors aet him to bryce & to nytnesse onfengon. (GD 1 (C) 2.25.35)
 ‘and so it happened that, when God’s man was given his own horse, then they all received their horses from him to enjoy and benefit from’

(16) Hwi waes mancynne (DAT) fleascmettes (NOM) alyfed aefter þam flode & na aer? (AEIntSig 52.1)
 ‘Why was mankind granted meat after the flood and not before?’

(17) Daet ceadda, be þaem ðe we aer bufan spraecon, Myrcna maegðe (DAT) waes biscop (NOM) seald... (Bede Head 4.18.4)
 ‘That Chad, about whom we spoke earlier, was given as bishop to the people of Mercia.’

예문 (15~17)에 den Besten(1985:42)의 ‘연쇄-지배(chain-government)’의 원칙⁶을 적용한다면 NP_j가 연쇄지배되는 최초의 격부여자는 INFL이 되며, 따라서 NP_j는 주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문 (16)을 도식화하면 (18)과 같다.



⁶ 참고로 den Besten의 ‘연쇄-지배원칙(CGP)’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a. If NP_j is governed by a category α which cannot or may not assign case, NP_j will acquire case from the first case-assigner up by which it is chain-governed.
- b. α chain-governs β iff α governs γ_1 , γ_1 governs γ_2 , ..., γ_{n-1} governs γ_n , and γ_n governs β ($n \geq 1$).

NP_i는 연쇄지배원칙이 적용된 후, 주어 위치로 이동하면서 그 여격을 보유하게 된다. NP_i가 기저생성되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과 비교해 볼 때, 위의 분석이 더 합리적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간접수동문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고려해본다면, 위의 분석이 가장 간단한 분석인 것 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세영어시기에 간접수동문이 출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순변화 및 여격 NP를 주어로 재분석(re-analysis)해야 하는 과정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중세영어에서는 간접수동문의 맨 처음에 오는 논항위치가 주격 NP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OE에서는 그 자리가 여전히 다른 격표시된 NP로도 채워질 수 있었다.

연쇄지배가 기저생성된 위치에서 NP_i에 주격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경우 NP_i가 주어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은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하며 인칭수동문의 경우, 더욱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연쇄지배의 개념은 위에 든 (15~17)과 같은 제한된 예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해결방법(ad hoc solution)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Haider(1985b)는 독일어를 비충형언어로 분석하면서 독일어와 영어의 격부여현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⁷ 그는 영어는 어휘격(lexical case)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어와는 다른 통사구문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독일어에는 어휘격과 구조격이 모두 쓰이는 반면, 영어에는 구조격만 쓰인다. den Besten의 연쇄-지배의 원칙은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⁸ OE의 간접수동구문 끝, [NP, S] 위치에는 여격 NP를, [NP, VP] 위치에는 주어 NP를 지닌 이 구문의 경우, 여격은 D-구조에서 부여되어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그 NP와 함께 옮겨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주어 NP가 이 구문에서 주격을 받기 위해서 유일한 가능성으로 생각되는 것이 연쇄지배원칙이 VP까지 적용되어 직접목적어에 주격을 부여함으로써 직접목적어가 지닌 비대격성을 대치시키는 일이다. 직접목적어가 쓰이는 (인칭)수동문에서는 연쇄지배원칙의 적용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구문에서는 구조격을 가진 NP가 주어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되어 주격을 받기 때문이다. 여격 NP는 VP내의 기저생성된 위치에 그대로 남게 된다.

OE에는 어휘격과 구조격이 모두 쓰이므로 어휘격이 모두 없어진 현대영

⁷ 이와는 달리 Koster(1975)는 화란어 및 독일어는 SOV의 심층어순을 가진 언어로 분석하고 있다.

⁸ Thiersch(1982)에 의하면 독일어에서 주어 NP는 V(동사)와 함께 주제화될 수 없는데, 이것은 주어 NP와 V가 분명히 하나의 구성성분이 아님을 의미한다. Thiersch의 주장은 INFL이 VP내에서 NP에 주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den·Besten의 주장에 반증이 된다.

어와는 다른 수동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간접수동구문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은 곧 이와 같은 어휘적이 상실된 결과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내재하는 간접목적어의 격형태가 중세영어에서 주격으로 바뀌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4. OE의 통사구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OE의 심층어순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간접수동문과 주제화에 의한 비형분분석(non-configurational approach)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OE 통사구조의 기본이 되는 심층어순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4.1. 어순의 비대칭

그런데, 고대영어에서 표면상 SOV와 같은 심층어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때문인 것 같다.

첫째, OE 주절에서는 한정동사(finite verb)가 문장의 두번째 위치에 온다는 점이다. (예문 19)

(19) *Ælfric munac gret Æðelweard ealdormann eadmodlice*
(*ÆHex* 76.1)

‘*Ælfric the monk greets Æthelweard the nobleman humbly.*’

물론 주절의 맨 처음에 오는 성분은 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목적어, 목적어전치사구, 부사류 따위)도 올 수 있다.⁹ OE 문헌에서 한정동사 앞에 오는 성분이 주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목적어, 대격(또는 여격) 전치사구, 부사류 따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OE 통사구조의 처음 위치가 주어만이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아님을 암시해 준다.

둘째, OE 문헌에는 표면상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한 어순유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내포절에서는 한정동사가 현대 독일어 및 화란어의 어순과 같이, 문장의 마지막에 와서 SOV로 나타난다(예문 20).¹⁰

(20) *gif hie ænigne feld secan wolden* (ChrA 84.26 (894))
‘if they wanted to seek any open country’

⁹ 이에 관한 상세한 예문은 졸고(1988a)를 참조하기 바람.

¹⁰ 이와는 달리 내포절에 COMP가 없는데도 한정동사가 두번째 위치에 와서 V2 현상을 나타내는 예도 있다.

Eala min leofa man ic þe mid lufe secge ic hæbbe Godes engel... (ASL, 356.76)
‘I say to you with love, my dear man, that I have God’s angel...’

이처럼 주절과 내포절(또는 종속절)에서의 한정동사의 위치가 표면상 다르게 나타나는 비대칭현상(asymmetry)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절 및 내포절의 심층어순을 SOV로 가정하고 문장에 기저생성된 COMP가 없을 때 한정동사가 전위(fronting)된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¹¹

4.2. 「동사-불변화사」구문

Koster(1975)는 현대화란어의 동사-불변화사(verb-particle)구문을 분석하면서 현대영어에서와는 달리 불변화사이동규칙은 현대화란어에는 없고 불변화사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은 화란어의 심층어순이 SOV이며, 동사배치변형에 의해 불변화사를 동사의 본래 위치에 남긴다는 가정하에서만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언어습득과 관련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가령, 화란어는 SVO 언어이고 불변화사이동규칙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언어학습자는 언어환경에서 얻는 증거를 근거로 하여 불변화사이동규칙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예문 (21~22)를 살펴보기로 한다.

- (21) a. Hij gaf op
 'He gave up.'
 b. *Hij opgaf
- (22) a. Hij zei dat hij opgaf
 'He said that he upgave.'
 b. *Hij zei dat hij gaf op

예문 (21~22)는 불변화사이동규칙이 주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종속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증거를 근거로 언어학습자는 주절을 올바르게 생성해 내는 데 필요한 불변화사이동규칙을 이끌어 내기 위해 (21b) 및 (22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는 지식을 따로 습득해야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언어학습자가 이처럼 특별한 유형의 증거에 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곧 SVO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화란어의 어순을 SOV로 가정한다면 모든 언어학습자는 동사 본래의 위치에 불변화사를 남기는 동사배치변형만을 익히면 될 것이며, 언어환경에서 이 규칙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증거를 익힐 필요가 없게 된다.

¹¹ 주절과 내포절(종속절)에서의 어순의 비대칭현상이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내포절의 COMP(즉 *pret*)가 기저생성된 보문자로 보고, 이 보문자가 동사전위를 막아주는 성분으로서 COMP와 동사전위는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에 있다. OE에서의 COMP는 다른 서게르만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사이동의 착륙점(landing site)이 되며 INFL과 COMP간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COMP 교점에 있는 INFL이 동사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Koster는 화란어에 나타나는 동사-불변화사구문의 주요 특징을 (23)에서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 (23) a. V2절에서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의무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b. 종속절에서 동사와 불변화사가 분리될 경우 비문법적이 된다.
 c. 종속절의 동사와 V2절의 불변화사는 문장의 마지막에 온다. 단, 전치사구나 코머억양뒤에 부사류가 오는 경우, 또는 주어와 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제, 동사-불변화사구문이 OE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Koster의 분석과 비교하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23)에 열거한 특징이 OE 문헌에 표면상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문 (24)에서처럼, OE에서는 V2절에서 한정동사와 불변화사는 반드시 분리되지 않는다. 즉, 동사-불변화사의 분리는 임의적이다.

- (24) *Soplice ut-eode se sædere hys sæd to sawenne* (MT, 13.3)
 'Indeed, the sower went out in order to sow his seed.'

예문 (25)는 동사와 불변화사가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인데,

- (25) *þa geat mon þæt attor ut on þære sæ* (Oros 258.16)
 'then they poured the poison into the sea'

이런 경우에도 OE에서는 불변화사의 위치는 여전히 동사의 기본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불변화사의 위치가 기저생성된 동사의 위치가 아니라는 증거는 내포절(종속절)의 동사-불변화사구문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문은 OE 문헌에 가장 흔히 쓰이며 (S, O) prt, V...의 순으로 나타난다(26a). 예문(26b)는 종속절에서 불변화사가 동사와 떨어져서 동사의 왼쪽에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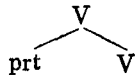
- (26) a. *þæt he ðone cwelmbæran hlaf aweg bære* (AHTh, II, 162)
 'that he carry away the deadly loaf'
 b. *ðeah ðu sie up ofer ðine mæd ahæfen* (CP, 467.3)
 'although you are raised above your condition'

예인테, 이때에는 불변화사와 동사사이에 항상 부사성 전치사구가 오는 것이 특징이며 목적어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불변화사는 실제로는 불변화사가 아닌 부사성 전치사구의 수식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¹²

¹² 내포절(종속절)에서의 동사의 위치와 주절에서의 불변화사 사이의 비교는 불변화사의 위치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동사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Koster(1975)에서의 화란어 분석을 OE와 비

OE에서는 주절에서 불변화사가 한정동사 바로 앞에 오거나 VP영역의 어딘가에 온다. 그런데, 종속절에서는 어느 위치든 자유롭게 나타난다. 가령, OE가 SVO언어라고 가정한다면 불변화사가 주절 또는 내포절에서 동사앞에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불변화사가 동사앞에 오는 OE 구문은 동사가 두번째 위치에 오는 주절에서는 흔히 나타나며, 내포절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쓰인다. 주절의 경우, 동사와 불변화사간에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른 많은 성분이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OE가 SVO와 같은 심층어순을 지니고 동사 및 불변화사가 한 단위로 기저생성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절과 종속절에서 불변화사를 동사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더우기, 이 규칙은 주절에서의 불변화사의 위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 좌특점을 형식화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내포절에서는 불변화사가 동사의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목적어 NP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곧, 불변화사이동규칙이 주절과 내포절을 구분시켜주는 규칙임을 암시해주는 것이 되며 매우 이상한 제약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OE의 심층어순이 SOV이며 주절에 동사이동(V-movement)규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결된다. 즉, 「동사-불변화사」는 동사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면서 기저생성된다고 가정하면 (27)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¹³ OE에서 불변화사는 현대영어에서 주어앞에 오는 경

(27)



우(예컨대, *out he went*)의 예를 제외한 어느 위치에도 올 수 있다(Mitchell 1978, Denison 1981)고 함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OE에서의 격부여는 구조적이 아닌 어휘적으로 일어나므로 동사는 특정목적어 및 보문에 대해 하위범주화하게 되며, 이 하위범주화에는 의미역(θ -role)과 격(case)이 포함된다. 특정동사의 경우, 그 목적어는 속격이나 여격을 받게 되

교해 봄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1988a)를 참조하기 바람.

¹³ 현대영어에서는 *give up*과 같이 V+prt로 나타난다. 그러나, *upgrade*, *overlook*, *undertake* 등과 같이 prt+V의 복합동사도 흔치 않으나 쓰인다. 대체로 게르만계어는 prt+V의 유형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독일어의 경우, *übergehen*, *aufgehen*, *umgehen*에서처럼 *über*, *auf*, *um*과 같은 불변화사(이 경우, 전치사)의 예는 흔히 나타나며, 화란어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흔히 쓰이고 있다. OE에는 prt+V와 같은 유형의 복합동사가 V+prt보다 더 흔하게 쓰인다. 따라서, OE에서 불변화사와 동사는 하나의 의미단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현대영어의 구동사(*phrasal verb*)의 효시가 된 것 같다.

며 이것은 어휘부(*lexicon*)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불변화사도 동사의 하위범주화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Koopman 1985).

4.3. 외치

OE에서의 외치(*Extraposition*) 현상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OE 통사구조의 심층어순이 앞 절에서 가정한 것처럼 SOV로 할 때 OE에서의 VP의 기본구조는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E에서는 목적어성분(NP, PP, $\bar{\text{S}}$)중 어느 것도 동사의 오른쪽으로 외치시킬 수 있다.

(29) a. *same men cwepap on Englisc pæt hit sie* [_{NP} *feaxede steorra*]
(Parker 891)

'some men say in English that it is a long-haired star'

b. *æfter disum gelamp pæt micel mancwealm becom* [_{PP} *ofer pære Romaniscum leode*] (AHTh, II, 122.15)

'then it happened that a great plague came over the Roman people'

(29a)에서는 NP(*feaxede steorra*)가, (29b)에서는 PP(*ofer pære Romaniscum leode*)가 동사의 오른쪽으로 외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OE 문헌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Stockwell(1977)은 OE 문헌에서의 외치과정과 그 동기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는 $\bar{\text{S}}$ 와 같은 목적어성분이 외치되는 현상은 OE 초기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현대 화란어와 독일어에서와 같은 SOV 언어에서도 문장목적어의 외치가 의무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Stockwell(1987)은, OE 어순을 재조명하는 통계를 OE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OE에서의 외치가능성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다른 성분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며 이렇게 적용된 중요한 한가지 가능한 이유로 동사가 두번째 위치에 오는 주절은 OE 문헌에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유형으로 분류하고 목적어성분이 항상 한정동사뒤에 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목적어성분의 외치이외에도 OE 문헌에는 문장목적어(*sentential object*),

관계절 따위와 같은 목적어성분의 위치현상도 일어나서 OE에서의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본다면,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OE의 통사구조가 라틴어의 영향을 받아¹⁴ 자유로운 어순(*free word-order*)을 지니고 있었다는 비층형분석과는 달리, OE의 통사구조는 상당한 정도로 규칙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동사가 제 2의 위치에 오는 현상(*Verb-second phenomena*)을 보여주는 SOV어순을 지닌 층형구조임을 동사-불변화사구문 및 목적어성분의 위치현상을 통해 살펴 보았다.¹⁵ 그러나, 현대영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OE 통사구조의 층형분석에 어느정도 설명력(*explanatory power*)과 명료성(*clarity*)을 부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지 않을 수 없다.¹⁶

참 고 문 헌

- Allen, C. (1975) 'Old English Modals,' in J.B. Grimshaw, ed., *Papers in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English*,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89-100.
- _____ (1980) 'Movement and Deletion in Old English,' *Linguistic Inquiry* 11. 2, 262-323.
- Bean, M. (1983) *The Development of Word Order Patterns in Old English*, Croom Helm, London.
- den Besten, H. (1985) 'The Ergative Hypothesis and Free Word Order in

¹⁴ 그러나 Traugott(1972)는 OE 시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사용하던 통사구조가 라틴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Allen(1980)로 마찬가지이다.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Ælfric(ca. 1000)의 *Lives of the Saints, Homilies*에도 라틴어의 수사적 기법은 여러모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심층구조에 관한 한, 그 영향이 거의 없으며 Ælfric의 문체는 라틴어의 화법이 라기보다는 게르만어의 두운시에 한층 더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¹⁵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하는 동사전위(*verb-fronting*) 현상과 접어(*clitics*)에 관한 설명은 본고에서는 지면상 생략하였다. 더 상세한 이론적인 논의는 줄고(1988 a, b)를 참조하기 바람.

¹⁶ Mitchell(1985 I. lxii)의 다음과 같은 말은 OE 통사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이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I have to state categorically my opinion that, on the evidence so far available to me, the techniques of the various forms of linguistics fashionable today have little to offer students of OE syntax.'

- Dutch and German,' in J. Toman, ed., *Studies in German Grammar*, Foris, Dordrecht, 23-64.
- Canale, M. (1976) 'Implicational Hierarchies of Word Order Relationships,' in William M. Christie, Jr. ed., *Current Progress in Historic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Tucson, Arizona; North-Holland Linguistics Series 31, Amsterdam.
- _____ (1978) *Word Order Change in Old English: Base Reanalysis in Generative Gramma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 Carlton, C.R. (1970) *Descriptive Syntax of the OE Charters*, Mouton, The Hague.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Denison, D. (1981) *Aspects of the History of English Group-Verb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yntax of the Ormulum*,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 Fries, C. (1940) 'On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Use of Word Order in Modern English,' *Language* 16, 199-208.
- Gardner, F. (1971) *An Analysis of Syntactic Patterns of Old English*, Mouton, The Hague.
- Haider, H. (1981) 'Empty Categories: on Som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German,' *Wiener Linguistische Gazette* 25, 13-36.
- _____ (1985a) 'The Case of German,' *Studies in German Grammar* 21, Foris, Dordrecht, 65-118.
- _____ (1985b) 'A Unified Account of Case—and Theta—marking: the Case of German,' *Papiere zur Linguistik* 32,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3-36.
- Hale, K. (1982) 'Preliminary Remarks on Configurationality,' in J. Pustejovsky & P. Sells, eds., *Proceedings of NELS* 12, 86-96.
- _____ (1983) 'Warlpiri & the Grammar of Non-configurational Languag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Vol. 1, No. 1, D.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 Boston, 5-47.
- van Kemenade, Ans (1984) 'Verb second and clitics in Old English,' in *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Foris, Dordrecht, 101-109.
- van Kemenade, Ans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 History of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recht.
- Koopman, W. (1985) 'The syntax of verb and particle combinations in Old English,' in H. Bennis & F. Beukema, eds., *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1*, Foris, Dordrecht, 91-100.
- _____ (1988a)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Old English,' *Amsterdam Papers in English* 1.1, 124-138 (Paper read for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1987).
- _____ (1988b) 'Old English constructions with three verbs,' *APE* 1.2, 118-143.
- Koster, J. (1975) 'Dutch as an SOV Language,' *Linguistic Analysis* 1.2, 111-136.
- Lightfoot, D. (1974) 'Diachronic Syntax: Extraposition and Deep-structure Re-Analysis,' *Papers from the 5th Annual Meeting NELS V*, Harvard University, 9/10, 200-215.
- _____ (1977) 'Syntactic Change and Autonomy Thesis,' *Journal of Linguistics* 13, 191-216.
- _____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_____ (1981) 'The History of NP Movement,' in C. Baker and J. McCarthy ed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86-119.
- Malsch, D.L. (1976) 'Clauses and Quasi-Clauses: VO order in Old English,' *Glossa* 10, 28-43.
- Mitchell, B. (1978) 'Prepositions, Adverbs, Prepositional Adverbs, Pöstpositions, Separable Prefixes, or Inseparable Prefixes, in Old English?' *NM* 79, 240-257.
- _____ (1985) *Old English Syntax*, Clarendon Press, Oxford.
- Mossé, F. (1945) *Manuel de l'Anglais du Moyen Age des Origines au Xvième Siècle*: I. Viel Anglais, Paris.
- Park, Y-B. (1988a) *A Study of Prepositional Stranding in Old and Middle Englis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88b) 'Syntactic Behaviors of Clitics in Old English,'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4.3, 583-604.
- Reddick, R.J. (1982) 'On the Underlying Order of Early West-Saxon,'

- Journal of Linguistics* 18, 37-56.
- Rydén, Mats (1987) 'Syntactic Variation and Paradigmatic Typology,' *Studia Linguistica* 41, Lund, 48-58.
- Shannon, A. (1964) *A Descriptive Syntax of the Parker Manuscript of the Anglo-Saxon Chronicle from 734 to 891*, *Janua linguarum* 14, Mouton, The Hague.
- Stockwell, R.P. (1977) 'Motivations for Exbraciation in Old English,' in Charles N. Li, ed.,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and London, 291-314.
- _____ (1984) 'On the History of the Verb-Second Rule in English,' in J. Fisiak, ed., *Historical Syntax*, 575-592.
- _____ (1987) 'Perspectives on Old English Word Order,' paper given for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Historical Linguistics, 1987, Cambridge.
- Stowell, T. (1982) 'A Formal Theory of Configurational Phenomena,' in J. Pustejovsky & P. Sells, eds., *Proceedings of NELS* 12, 235-257.
- Szalai-Smits, E.C.M. (1988) '(Non-)configurationality in Old English sentence structure,' in *APE* 1.1, 43-65.
- Thiersch, C. (1982) 'A Note on 'Scrambling' and the Existence of VP,' *Wiener Linguistische Gazette* 27/28, 83-95.
- Traugott, E. (1965) 'Diachronic Syntax and Generative Grammar,' *Language* 41, 402-415.
- _____ (1969) 'Toward a Grammar of Syntactic Change,' *Lingua* 23, 1-27.
- _____ (1972) *A History of English Syntax*, Holt, Reinhart and Winston, New York.
- Travis, L. (1984) *Parameters and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T.
- Visser, F. Th. (196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Part I, Brill, Leiden.
- Wagner, K.H. (1969) *Generative Grammatical Studies in the Old English Language*, Julius Gross Verlag, Heidelberg.
- van der Wurff, W. (1988) 'The Easy-to-Please Construction in Old and Middle English,' in *APE* 1.1, 66-81. (Paper read for the *ICEHL*5, Cambridge, 1987)

ABSTRACT**On Old English Word Order**

Young-Bae Park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most important recent theories about non-configurational syntax and extended the discussion to Old English data. The viability of either a configurational or a non-configurational analysis is explored with the help of so-called indirect passive constructions. However, these constructions do not require a non-configurational analysis, since a regular, hierarchical structure can accommodate the NP arguments. The problem, then, is that in order to make a configurational proposal, we have to adopt the operation of an extra case-assignment principle—the so-called chain-government principle, which remains an ad hoc solution without apparent motivation. In this respect, I suggested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Old English is an SOV language with a hierarchical structure, displaying a fair amount of regularity and conformity. Verb-particle combinations and the phenomena of extraposition were suggested as strong supporting evidences for the underlying SOV hypothesis in Old English.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